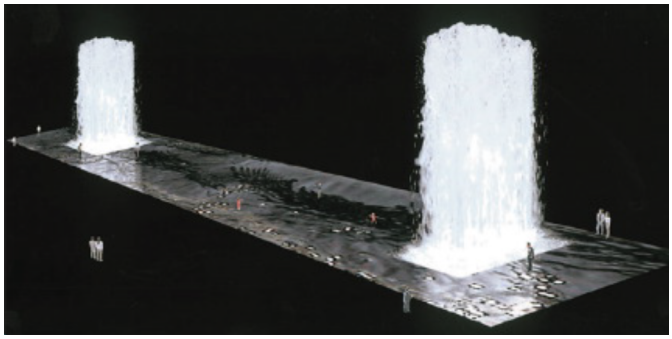
문예진흥원은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kcaf.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해외 문화예술계 핫 뉴스

시카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밀레니엄 파크'

The Art Newspaper March. 05, 2004

1997년 시 예산으로 그랜트 파크를 새로 단장해 2000년 문을 열 계획이었던 것이, 공공예술과 건축의 도시로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시카고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엄청난 규모로 확장해 다가오는 여름 '밀레니엄 파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원에는 인도 출신의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의 125톤에 이르는 철재 조각품과 카탈로니아 출신 호메 플렌사(Jaume Plensa)가 제작한 길이 220피트의 비디오 분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반짝이는 금속 자재의 야외 음악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밀레니엄 파크'의 예술품과 건축물 설치를 위한 기금 모금에는 시카고 미술대학(Art Institute of Chicago)의 이사장 존 바이런(John Byro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48명의 개인과 20개 기업, 12개 재단이 각각 1백만 불 이상을 기부하였다.



호메 플렌사(Jaume Plensa)가 제작한 길이 220피트의 비디오 분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중계방송 살리기

The New York Times March. 06, 2004

세계적인 에너지 대기업 쉐브론 텍사코(Chevron Texaco)가 그간 지속해 온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방송중계 후원을 2003 ~ 2004 시즌 말로 끝내기로 공식 발표한 후, 새로운 후원기업을 찾지 못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이제 대중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대표이자 유명한 소프라노 베벌리 실즈(Beverly Sills)는 3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동 오페라의 〈라 트라비아타〉 라디오 중계의 인터미션에서 향후 5년간 1억5천만 불의 기금모금 계획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애청자에게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플로리다의 빈센트 A. 스테이빌 재단으로부터 350만 불의 후원과 필라델피아의 애넌버그 재단으로부터도 350만 불의 지원을 받아 내년 시즌 라디오 중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베벌리 실즈는 말했다. 1931년 크리스마스날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을 처음 중계하기 시작한 이래, 12월부터 4월까지 링컨센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의 생생한 실황공연이 매해 20여 회 중계된 이 토요일 오후의 라디오 방송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오페라 디바의 조건 - 목소리인가? 몸매인가?

The Guardian March. 09, 2004

이제 뚱뚱한 여가수는 더 이상 오페라 무대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현실이 된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는 이번 시즌 6월에 막을 여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Ariadne auf Naxos)의 주역으로 당초 캐스팅한 미국 소프라노 데보라 보이트(Deborah Voigt)를 전격 교체하였다. 교체 이유는 그녀의 뚱뚱한 외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역은 독일의 신예 안네 슈바네빌름즈 (Anne Schwanewilms)로 데보라 보이트보다 훨씬 날씬한 용모의 소유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는 기존의 오페라 연출과 달리 현대 복장의 무대의상 컨셉으로 진행되는데, 여주인공의 의상이 몸매의 선이 완전히 드러나는 검정 드레스로 제작되어 당초 캐스팅하기로 한 보이트의 건장한 용모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코벤트가든 캐스팅 디렉터의 해명이다.
"코벤트가든 측은 제 히프가 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이트는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 보이트는 1998년 코벤트가든에서 슈트라우스의 〈이집트의 헬레나〉(Die Aegyptische Helena)의 주역으로 출연하여 최고의 슈트라우스 가수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때만 하더라도 코벤트가든 측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브로드웨이 가상오케스트라 논란

The New York Times March. 12, 2004

지난해 브로드웨이 파업의 주원인이었던 가상오케스트라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음악 실황연주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첨단 신서사이즈 장치인 '신포니아(Sinfonia)' 제작회사인 맨하탄의 리얼타임 뮤직 솔루션즈(Realtime Music Solutions) 회사는 브로드웨이 음악인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2월 미국 음악인 연맹 노동조합 로컬 802가 브루클린 오페라단(Opera Company of Brooklyn)과 향후 모든 작품에 가상오케스트라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리얼타임 뮤직 솔루션즈는 이러한 계약은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노동 행위로 회사의 영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악인 노동조합의 변호사 레너드 레이보위츠(Leonard Leibowitz)는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동 계약서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도 없으며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억 달러(4,8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 있는 뉴욕의 무용산업

Backstage March. 09, 2004

무용 활동이 뉴욕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2 ~ 2003 시즌 동안 직접적인 무용 공연으로 뉴욕시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전체적으로는 4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2년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유료 관객들이 무용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무용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 기관인 Dance/USA 의 뉴욕지부인 Dance/NYC 가 몇몇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이러한 수치는 무용 산업이 뉴욕시의 중요한 창작활동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촉매 역할과 함께 뉴욕의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입안자들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세금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의 무용계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직·간접 세금 총액은 2,320만 달러인데 이중 4백만 달러는 관객들의 입장료에서, 나머지는 무용 종사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간접소득세(750만 달러는 간접 판매세, 1,170만 달러는 간접 개인소득세)로 이루어져 있다.